

# 다니엘서 - 제74번

예언의 수수께끼 풀기: 에스겔서의 가증한 일들, 말세의 교회, 그리고 짐승의 표

Jeff Pippenger  
2024-02-07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부가 태양에게 절하게 하여, 그리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같은 환상인 다음 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보여 준다. 화잇 여사는 에스겔 9장의 인치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인치는 일과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삼사대에 심판하시며, 에스겔의 네 가지 가증한 일은 1863년에 시작된 반역의 네 세대를 지목한다. 그때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하박국의 두 판의 위조품을 도입했는데, 하박국의 두 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주어졌고,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졌던 것과 같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가짜 형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참된 질투의 형상을 나타내는 두 돌판을 주고 계시던 바로 그때 드러난 반역의 상징이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다른 시간 예언들과 함께 그 메시지에서 제거했던 가짜 1863 도표를 예표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은 그 역사 가장 초기에 질투의 형상을 세웠는데, 이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초기의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북왕국 에브라임의 초기 역사에서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과 같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밀러가 이해하도록 인도된 최초의 시간 예언이었으며, 1863년의 반역 속에서 폐기된 예언적 시간의 첫 번째 보석이었다. 1863년은 밀러의 꿈의 보석들을 덮어 숨기고 가짜 보석과 주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해였다. "일곱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잇돌이었다. 1863년에 "일곱 때"라는 모퉁잇돌을 제쳐 둔 자들은 바로 밀러파 성전을 세워 온 사람들이었으나, 마지막 때 그 돌은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은 영원한 반석을 상징했고, 또 주께서 만드신 날로도 나타났으니, 그것이 땅의 안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1844년에 밀러파 재림운동은 여로보암의 거짓된 예배 체제를 꾸짖었고, 첫 번째 실망을 두고 "기뻐하던" "조롱자들의 회중"과 분리되었다.

유다의 예언자가 그를 1844년에 이르게 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건축자들은 결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를 1844년에 이르게 했던 길은 그가 빠져나온 길, 즉 개신교였고, 그 역사에서 개신교는 배도한 개신교가 되어 있었다. 건축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지도 그들의 물을 마시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건축자들은 1840년에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먹었고, 그 음식은 그들의 입에 달았다.

예언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상징한다. 밀러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특정한 방식이 주어졌고, 그 규칙들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그들의 부패한 방법론으로 만들어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 기별을 산출했다. 건축자들, 곧 유다의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나 가톨릭의 방법론을 먹거나 마시려 되돌아가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했고, 이로써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1863년에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1863년에 그들은 배도한 개신교의 신학적 논증을 동원하여 '일곱 때'에 대한 밀러의 적용을 거절했고, 그리하여 아론과 여로보암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때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첫 세대가 시작되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대면한 뒤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그 선지자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표상하는데, 영감에 따르면 그것은 1856년에 밀러 운동 안으로 들어왔다. 화잇 자매는 재림주의를 라오디게아로 규정하는 데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라오디게아가 변화한다는 성경적 증거도 없다. 자신의 개인적인 라오디게아적 경험에서 벗어나는 개인들은 있지만, 교회로서는 라오디게아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는 라오디게아가 '심판받는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림주의는 이 정의를 이용해 자신들이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 기간 동안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눈멀음 가운데 그들은 라오디게아라는 의미 속에 담긴 조사심판 요소는 인정하지만, 그 이름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집행심판은 보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아메이신 분, 곧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이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14-17.

유다의 선지자는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마실 것을 마시게 하도록 그를 속였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결국 묻히게 된다. 그들은 둘 다 같은 무덤에 묻히고, 베엘의 거짓 선지자(가짜 교회)는 유다의 선지자가 죽자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때 베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엘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가 왕에게 말한 그 말들도 아버지에게 다 전하였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그의 아들들이 보았음이라.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나귀에 안장을 엮어라" 하니, 그들이 그의 나귀에 안장을 엮었고, 그가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하니라.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도, 너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노라. 이 곳에서 너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너와 같이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를 너와 함께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이는 그가 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 이에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돌아온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와 입을 거역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은즉,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열왕기상 13:11-22.

1844년 여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 교회들이 타락하여 가톨릭의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식별하여 선포하는 것이었다.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사람들에게 그 교단들을 떠나라고 호소했는데,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벤엘의 거짓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벤엘에 세운 종교 체제를 나타낸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체제였으며, 본뜬 그 짐승은 가톨릭을 상징하는 짐승이었다. 개신교도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칭했지만, 동시에 가톨릭 권위의 표인 태양의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도 계속하였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유일한 정의는 로마에 항의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는 로마 교회를 닮아 있다. 로마 교회가 성경적 정당성도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기관이라 자칭하기 때문이다. 그 교회의 주장은 전통과 관습이라는 공허한 권위에 근거해 있으며,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신들을 프로테스탄트라 주장할 때 동원하는 것과 같은 거짓 권위이다. 이것은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눈멀게 하여, 자신들이 라오디게아인으로서 여전히 안전한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믿게 만든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은 우리라”라고 말하며 선포했던 바로 그 거짓 권위와 동일하다.

그 경고를 유대 백성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분의 대표자로서의 높은 특권을 상실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에 아무런 축복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이점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이웃들에게서 종교적 인도와 거룩한 본을 빼앗았다. 대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이것들이라”(예레미야 7:4)고 말하며 거룩한 것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다.

"주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신뢰를 저버렸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을 신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백성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늘 제시하지 않았다. 이 농부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다.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들 것으로 차지하려 했다. 사람들의 관심과 경의를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는 데 열중했다." Christ's Object Lessons, 292.

1863년에 밀러주의자들의 운동은 끝났지만, 그 운동은 1856년에 이미 필라델피아인들의 운동이기를 그쳤다. 모세의 메시지('일곱 번')를 엘리야(윌리엄 밀러)가 제시했으나 그것은

거부되었고, 그 거부는 뱀엘의 거짓 선지자의 방법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1863년은 1798년에 시작된 65년의 끝이었으며, 이사야 7장 예언의 끝이었다.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나 이기지 못하였더라. 다윗의 집에 이르기를,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연합하였다 하니, 바람에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듯 그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세탁하는 자의 발 큰길에 있는 윗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러 나가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라. 삼가고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 연기 나는 햇불 두 꼬리, 곧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의 맹렬한 분노와 르말라의 아들의 분노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모의를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가운데에 틈을 내며 그 한가운데에 곧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음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것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부서져 더 이상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1-9.

8절의 65년 예언은 65년의 기간 '내'에 열 지파의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이 환상은 기원전 742년에 기록되었고,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에브라임은 흩어져 앗시리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기원전 677년, 65년의 끝에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기원전 742년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쪽 왕국들 사이의 내전을 가리키며, 이는 1863년이 미국에서 북과 남 사이의 남북전쟁 한복판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이 예언은 문자적인 영화로운 땅(유다)에서 이사야에 의해 선포되었고, 1863년의 예언은 영적인 영화로운 땅(미국)에서 성취되었다.

65년의 예언 안에는 세 가지 이정표가 있다. 기원전 742년의 내전이 있는 뒤 19년이 지나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이 흩어졌다. 65년의 끝에는 남왕국이 흩어졌다. 그 예언은 시작과 끝을 포함하여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진노"를 나타내며, 그 두 진노의 시작에는 각각 19년이 앞서고, 각각이 성취된 뒤에는 또 다른 19년이 뒤따른다.

전체 교차 대칭 구조는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남과 북 사이의 내전 시기를 지목한다. 시작과 끝의 한가운데에서 내전의 두 적대자는 모두 노예로 끌려갔고, 서로로 인해 흩어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한 나라로 모이는 65년의 기간을 지나 그들이 도달하는 때가 1863년인데, 그 날짜는 노예들을 해방한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문자적 유다의 내전에 대한 예언은 영적 유다의 내전에서 결말을 맺는데, 이는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항상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863년의 역사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아들과 함께 유다의 악한 왕(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기원전 742년의 역사로 대표되었다. 본문에서의 기원전 742년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관한 증언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중단시키고 그의 대체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상 성소 바로 경내에 시리아 신전의 모형을 세우게 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 기원전 742년으로 표시된 악한 왕 아하스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교 숭배(가톨릭교)를 도입했는데, 이는 엘리야에 의해 전해진 모세의 메시지를 버리기 위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배교한 개신교의 방법론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았다. 기원전 742년에 이사야는 윗못 수로의 끝, 세탁하는 자의 들 곁에서 유다의 악한 왕과 대면했으며, 그때 그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 아들의 이름은 징조였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과 대면했을 때에도 그에게 징조를 주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 표징과 기적이니라. 이사야 8:18.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남은 자를 이루는, 곧 '돌아오는' 이들은 지체하는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나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징조와 기사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8:17, 18.

기원전 742년에 이사야가 악한 왕 아하스와 대면할 때, 그는 "기다린" 자들을 대표한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말세에 "기다리는" 자들은 첫 실망을 겪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비를 거두셨다고 생각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결심한다. 이는 환상이 지체되는 때의 "지혜로운 자들"을 나타낸다. 돌아와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한 자들, 곧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도록 예정된 자들은 인침을 받았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대조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져 부서지며,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얼굴을 야곱의 집에서 숨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표징과 기사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들과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술사에게 물으라"고 할 때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8:16-20.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 말들은 화이트 자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사자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분과 엇갈린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촉구하신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전진을 대적하며, 사탄이 이끄는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자들에 관하여 많은 훈계가 주어졌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결코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들이 행사해서도 안 될 권위를 움켜쥐었다.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뒤엎고, 또 뒤엎고, 또 뒤엎으리라." 배틀크릭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라" 하지만 그들은 속된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굴복하지 않았다.

Manuscript Releases, 제13권, 222.